

배포일시	2021. 7. 1.(목) 10:00 (총 4매)	보도시점	2021. 7. 1.(목) 11:30
담당부서	기상청 예보분석팀	담당자	팀장 김성묵
		전화번호	02-2181-0606

이번 주말 전국 첫 장맛비

- 3일 늦은 밤~4일 오전 매우 강하고 많은 비 집중
 - 중부지방, 전라도,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 최대 150mm 이상
 -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



[7월 3일 늦은 밤~4일 오전 기압계 모식도]

- 기상청(청장 박광석)은 3일(토)~4일(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첫 장맛비가 내리고, 중부지방과 전라도,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를 중심으로 150mm 이상의 많은 비와 함께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된다며, 인명과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당부와 함께 상세한 기상전망을 발표하였다.

[기압계 전망]

- 기상청은 현재(7월 1일 오전) 동중국해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고 서쪽에서 접근해오는 저기압이 함께 영향을 주어 3일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였다.
- 최근 한반도 주변 상공에 머무르면서 정체전선의 북상을 저지하던 찬 공기가 동쪽으로 빠져나감에 따라 정체전선이 우리나라로 북상해 3일 전국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강수 전망]

- 정체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3일 오전(06~12시)은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어 3일 오후(12~18시)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강수 집중) 정체전선 부근으로 저기압에 동반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며 비구름이 더욱 강해지는 3일 늦은 밤~4일 오전에 비가 매우 강하게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 (강우 강도) 특히 이 시기를 중심으로 고온의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되는 중부지방과 전라도,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4일까지 총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였다.

< 예상 강수량 (3일~4일) >

- 중부지방, 전라도,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 50~100mm (많은 곳 150mm 이상)
- 그 밖의 지역: 30~80mm

- (유의사항) 때문에 도시 내 소화천, 지하도, 우수관 및 상하수도 관거와 저지대 등 상습침수구역과 산간, 계곡에는 물이 급격히 불어나 범람과 침수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점검과 함께 비가 시작되기 전부터는 접근과 작업을 자제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이후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정체전선이 다시 남해해 남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은 4일 오후까지 비구름이 영향을 주겠고,
- 4일 오후 이후에도 정체전선이 머무르는 남해안과 제주도는 비가 지속되고, 그 밖의 지역도 3~4일 주기로 통과하는 저기압이 정체전선을 북상시키면서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하였다.

[강풍 전망]

- 3일 오후부터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시속 35~60km(초속 10~16m)의 바람과 함께 순간적으로 시속 70km(초속 20m) 이상의 강한 돌풍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밝혔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순간 풍속 55km/h(15m/s)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강한 바람에 의해 야외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건설현장, 비닐 하우스 등의 시설물 파손과 간판 등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자 안전과 시설물 점검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풍랑 전망]

- 3일 서해전해상과 남해서부먼바다, 제주도전해상(북부앞바다 제외)에는 시속 35~60km(초속 10~16m)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물결이 2.0~4.0m로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
- 대부분의 해상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고 전하였다.